

- 성공적인 인천AG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

#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인천경찰청장 직급 상향 : 치안감⇒치안정감)

## **인천광역시의회**

- 성공적인 인천AG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

#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인천경찰청장 직급 상향 : 치안감⇒치안정감)

[대표발의 : 박승희 의원]

의안 번호	35
----------	----

발 의 년 월 일 : 2014. 7. 21.

발 의 자 : 박승희·이용범 의원  
(찬성자 9인)

## 1. 주 문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마련과 인천시민에 대한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내 치안 인프라 확충 및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격상 하도록 건의함

## 2. 제안이유

- 인천시민 300만명 도래를 앞두고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안전욕구 충족과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에 의한 안보 위협 증대 등 인천경찰에 대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지역적으로 경찰의 선봉에 서서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인천경찰청장에게 있고
- 인천AG 안전업무와 관련해 유관기관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기이나 현재 1급 이상인 유관기관장들과의 직급 격차로 인천경찰청장의 지원요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번 국가적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천경찰청장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격상된 인천경찰청 조직체계는 경찰내부의 전문성을 살린 운영과 명품치안 서비스를 인천시민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도시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할 것임.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임

3. 이 송 처 :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4. 첨 부 :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1부.

- 성공적인 인천AG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

#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인천경찰청장 직급 상황 : 치안감⇒치안정감)

인천은 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거대 관문도시로 인천시민 300만명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인천의 치안 현실은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입국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치안 수요가 전국 최고의 서울, 경기권에 인접하여 치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인력이나 치안역량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위기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또한,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서해 5도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4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의 장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고 내실 있는 치안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특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 업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때이지만 인천시장과 인천지검장의 차관급 직위와 부시장 1급, 국정원 인천지부장 1급이라는 직위 체제하에서는 각 기관장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인천경찰청장의 요구가 손윗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이전에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2급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치안정감은 전국적으로 5명으로 경찰청 차장과 경찰대학장을 제외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 3곳뿐입니다. 격상된 치안정감 체계는 경찰내부의 전문성을 살린 조직운영과 치안 인프라를 확장시켜 인천시민에게 명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도시 이미지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과 지역안보 특수성, 더 나아가 국가적 행사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화두 앞에서 경찰의 선봉에 서서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인천경찰청장의 위상을 높여 한 단계 더 높은 치안서비스를 선보일 때입니다. 인천의 지역발전과 함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맞는 치안역량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격상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 7. .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